



조지아 동남부 연합 한인회

창립 및 창립 총회 안내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SOUTHEAST GEORGIA

일시: 2025년 4월 6일 (일) 오후 3시

장소: 270 Adams Rd, Bloomingdale, GA 31302

풀러 (Pooler)	리치몬드힐 (Richmond Hill)	하인스빌 (Hinesville)
린컨 (Rincon)	블루밍데일 (Bloomingdale)	팜부룩 (Pembroke)
사바나 (Savannah)	스테이트스보로 (Statesboro)	브런스윅 (Brunswick)
가이튼 (Guyton)	엘라벨 (Ellabel)	미드웨이 (Midway)

설립취지

1970년대, 조지아 동남부 지역의 한인들은 하인즈빌(Hinesville)과 사바나(Savannah)를 중심으로 정착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왔습니다. 이후 두 지역에서 각각 한인회가 운영되었지만,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인회 활동이 점차 중단되면서 지역 한인 사회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과 관련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조지아 동남부 지역의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한인 사회의 재정비와 결속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형식적인 한인회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인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 동남부 연합 한인회는 기존 거주 한인과 새롭게 정착한 한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더욱 강하고 단합된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한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지아 동남부 연합 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가 단순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립 총회 및 초대 회장 선출

한인회 창립 총회에서는 한인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을 선출합니다. 회장직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정회원 등록 후, 선거 전까지 공탁금 \$5,00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모임이니 교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총회 후, 저녁 식사를 포함한 리셉션이 진행됩니다.

발기인 (가나다순)

구남숙, 김명숙, 김성미, 김현미, 박은숙, 박정혜, 백남옥, 신회순, 윤마리아, 임덕수, 임봉운, 임태환, 이경희, 이애리, 조남순, 최경아, 한금숙, 왕미령, 왕순화

준비위원 (가나다순)

김명숙, 김성미, 김현미, 박은숙, 신회순, 안미숙, 윤마리아, 임덕수, 임봉운, 임태환, 조남순, 최경아, 한금숙, 왕순화

선거관리위원회

김현미, 김성미, 조남순

문의: 준비위원장 임태환 (912-572-1536)